

등록금협상 막판 진통

서울 26일 총장 면담요청

재단전입금 75억원 확충과 5% 등록금 인상율을 위해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본관 2,3층에서 시한부능성을 벌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학교측과 재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및 항의서한을 작성, 전달하였다.

총학생회는 공문을 통해 18일 등록금 협상 결렬에 대한 총장의 공개사과와 등록금 일방고지에 관한 학교당국과 재단의 견해 발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해결할 데인 창출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총학생회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5일까지 요구하며 26

수원 교학협 구성 문제로

일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광재(정경대·신방) 기획실장은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등록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8일 총학생회가 배포한 유인물중 '전국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도표의 운영수입을 재단의 수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단의 수익이 아닌 90년도 학교의 전체 예산입니다."라며 학생들의 자료분석이 정확하지 않음을 밝히고 4월10일까지 등록금 협상을 교육부에 공고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피해가 클것으로 보인다며 일방고지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견해에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또한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협상을 지난 18일 부총장실에서 김봉길 부총장, 박규홍 기획실장등 학교 측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에서는 등록금 책정부문과 교학협의체 구성방안등을 논의하였다. 교육재정확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재(유전·3) 자연과학대학총장은 이날 교육재정확보부위의 일환으로 교수·학생 공동선언문을 채택, 학교측에 제시하였으나 학교측은 교학협의체 구성에 학교의 3주제인 직원이 제외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 실무적

차원에서 먼저 교수협의회에서 학생들과 논의 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국가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부족이 등록금인상에 가장 큰 문제임을 전제하며 이에따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교수·학생공동의 의견서인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가피함을 재선언하기도 하였다. 이후 학교측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학교측과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용성총련' 공정선거 캠페인 지역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성남일대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체육대앞 혁명광장에서 '민자당을 심판하고 공정선거 실현위한 용성 5만학도 결의 대회'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는 이성일(원자공·4) 부총학생회장이 지난 19일 신갈에

서 있었던 무력진압 상황보고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이승재(유전·4)대학의 위원장의 '민자당 규탄구호와 3월총선승리 결의'가 있었으며 집회가 끝난뒤 7백여명의 학생들은 용성총련 집행인 성남 신구전투대에 모여 남은호(인쇄과·2)신구전투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공정선거를 위한 용성총련 5만학도의 결의 집회를 진행했다. 경원대,한국외대등 9개 대학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는 각 학교 총학생회장및 동아리연합회장등의 3월 총선승리를 위한 결의가 있었으며 성남 공정선거 캠페인 가두 시위시 지켜야할 행동지침이 전달

되었다. 또한 본교 총학생회장 겸 용성총련의장의 "민자당 심판하여 '민주국회건설하자'는 투쟁질의문 낭독이 있었다. 성남연합과 성남 지역 민주단체들이 결합한 3천여명의 시위대는 오후4시경 신구전투대를 나와 성남종합시장과 시청을 거쳐 경원대까지 2시간에 걸쳐 평화적인 공정선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경과의 마찰없이 시민들의 호응속에 가두시위를 마친 시위대를 집결하여 정리집회를 갖고 간부중심으로 22일까지 3월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운동부 대상 설문조사 기숙사 식사에 불만 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체육부는 축구부, 야구부등 5개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당국의 지원과 부대시설등에 대해 지난 3월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당국과 총학생

회의 지원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학교 지원부족으로 인한 선수스카우트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농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학생들은 연습장소와 기재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숙사인 국산관 사용에 대해서도 식생활 불충(26%), 난방및 식수부족(12%), 생활용품(9%)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휴게실 및 오락시설 확충, 샤워시설 미비, 세탁기 및 공중전화기 설치가 국산관내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체육과학대앞에서 열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출범식 모습

서울총학 '편지농활' 실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농민·학생연대사업부는 여름농촌활동을 진행했던 순창군에 총선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한 편지보내기 운동인 '편지농활'을 24일 총선전까지 실시한다.

대외연구비 지급내역 발표

'92학년도 1학기 현재 총3억8백66만원, 13명 수혜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교수대의 연구비 수혜내역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92학년도 3월현재 본교 교수중 13명이 총3억8백66만원의 대외연구비 수혜혜택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연구비 출처별로 분류해 보면 먼저 과학재단에서 진용옥(전자공)교수가 1억1백만원, 김상녕(원자공)교수 1천6백50만원, 채육삼(전자)교수 9백40만원, 윤진일(농학)교수 1천1백50만원, 김진용(수학)교수 4백50만, 정인식(유전)교수 1천만원, 김지영(유전)교수 2천만원 등 총1억8천4백

4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으며 상공부에서 박경석(기계공)교수에 3천3백46만3천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인식(유전)교수에 5천1백8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원(기계공)교수와 전역한(식가공)교수도 공동연구 목적으로 각각 1천9백만원과 2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부 국비해의과연 연구의 일환으로 오환실(기계공)교수가 일본동경대학에 유도진(사회학)교수는 독일 Munster 대학, 김경채(임학)교수는 스웨덴

농과대학에 각각 파견되어 있으며 정인식(유전)교수도 과학재단 post-Doc해의과연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 코넬대학에서 Solid Supercacid에 의한 Biomass의 전처리및 Bioenergy중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총학 방중 결산보고 초과지출분 자치회비서 충당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방중중의 총학 활동에 따른 지출비 내역을 발표했다. 이번 92년 방중 결산서는 학교가 총학 자치비로 지급한 2천1백33만원, 인권복지위원회 수익금 3백30만원 등 총2천4백63만원으로 지난 12월 24일 건설준비위원회 건설부처 2월말까지의 지출액

을 결산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서활동비:1천2만원(사무국:1백92만5천원, 선전부 1백42만원, 사회부:1백23만원, 연대사업:1백47만원, 기타부서:3백97만5천원) ▲전체사업비:1천8백79만원 이다. 한편 초과지출분 4백18만원은 3월중 학교에서 지급되는 학생자치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학점따기식' 교육 개선돼야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에 의미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대학에서의 주된 활동은 여러가지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거니와 신학문 창출등 탐구·연구이다. 하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던 지금의 대학은 학문연구보다는 학점따기식 풍토가 만연되어있다. 이는 학점이 사회진출의 명함으로 작용되는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기인한 왜곡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대학인들은 세태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성적에 지나칠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실수가 만회 또는 삭제될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대 학생회 기관지 '강한결음'에서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의 'F학점 처

리된 과목으로 인해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식별 불가능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의견이 실렸다.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전산처리가 되어 F학점을 받은 과목이 누락되거나 본교는 빈공으로 남아 있어 누가 보아도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교의 경우 성적 증명서 발급신청때 서울캠퍼스 전산실 설치 부재로 인해 수원에서 전산처리가 되므로 업무진행속도가 늦어져 아직까지 F학점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태대학의 경우도 일부 취업이 불리한 학교들이 부분적으로 F학점 삭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

는 듯하다. ▼학점때문에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의 개선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는 반면 남다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구별 또한 평등의 개념에서 볼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취득한 학점이나 학위가 평생문서로 되어 따라다니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있는 듯하다. 어떤 사람의 학문적 평가는 단지 몇장의 성적표에서 근거를 찾기 보다는 그 당시의 성과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사람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사 고

제 41기 수습기자 모집

4월6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2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양캠퍼스 신입생
- ▲모집부서: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 ▲선발방법 및 일정
 - 1) 시험전형: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 2) 시험일시
 - △서울캠퍼스: 1992. 4. 6(화) 오후6시
 - △수원캠퍼스: 1992. 4. 7(수) 오후6시
 - 3) 시험장소: 양캠퍼스 편집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편집실 (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 (구내전화 2056)
- ▲원서접수 마감: 4월6일 오후6시까지

대학주보사

대학주보의 미래 바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수습기자 모집 광고 ②

“
 밝은 새 역사의
 미래와 신화 창조의 주역이
 될 희망찬 이들이 가야할 길
 바로 대학주보가 열어
 나가겠습니다.
 ”

수습기자모집

오는 4월 6일 원서접수 마감

- 대 상: 양캠퍼스 신입생
- 모집부서: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 선발방법 및 일정
 - 1) 시험전형: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 2) 시험일시
 - △서울캠퍼스: 1992. 4. 6 오후 6시
 - △수원캠퍼스: 1992. 4. 7 오후 6시
 - 3) 시험장소: 양캠퍼스 편집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편집실 본관3층 신문방송국내 (구내전화 0095)
 - 수원편집실 학생회관3층 신문방송국내(구내전화 2056)
- 원서접수 마감: 4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학주보사